

영진전문대 동문, 후배사랑 릴레이 장학금 ‘밀물’

SK하이닉스 장기영씨 모교에 1천500만원 전달
5년간 1억6천여만원 달해... 인재양성에 뒷받침

영진전문대학의 릴레이 장학금 전달이 학교를 훈훈히 달구고 있다.

SK하이닉스에 올해 취업한 장기영(23)씨가 동기대표로 8일 모교인 영진전문대학을 찾아, SK하이닉스반 후배들에게 장학금 1천500만 원을 전달했다.

“남들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동분서주할 때, 저는 학업에만 열중했고, 지금 SK하이닉스 배지를 달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진전문대학이 저에게 취업이라는 선물을 주었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마련하였으니 후배여러분, 용기와 힘을 내길 바랍니다”

장씨 등 SK하이닉스에 올해 입사한 영진 출신 동기들은 42명. 이들 역

시 같은 회사 선배들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이를 릴레이식으로 후배들에게 되 물려주고 있다. SK하이닉스반을 포함한 이 대학 전자정보통신계열 후배사랑장학금은 2011년 시작돼 이제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이 계열 삼성디스플레이협약반 출신 선배들 역시 850만 원을 쾌척했고, 삼성SDI 협약반 졸업생들도 420만 원을 선뜻 내놓았다.

이로써 올해 졸업한 선배들이 현재까지 기탁한 장학금은 2천770만 원, 5년간 누계 장학금은 총 1억6천만 원에 이른다.

실제로 이 계열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반, 삼성SDI반, LG디스플레이반, LIG넥스원반,



8일 대학 교수회관에서 가진 SK하이닉스반 후배사랑 장학금 전달식 기념 사진촬영 모습. /영진전문대학 제공

도레이케미칼 등의 국내외 기업과 다양한 협약반을 개설 운영 중이며 최근 4년간 이들 협약반을 포함한 삼성, LG, 포스코 등 대기업에 1천130여 명을 진출시켜 취업 명문 학과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후배들을 대표해 장학금을 받은 전재형(24, 전자정보통신계열 2년)씨는 “선배들이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모은 소중한 뜻을 기꺼이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이런 뜻을 가슴에 새겨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영진전문대 취업선배들의 후배 사랑

취업 감사마음, 장학금으로
올해만 2천만원 이상 조성

취업장벽을 뚫고 기업체에 입사한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모교로부터 받은 교육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후배들에게 장학금으로 베풀어 관심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영진전문대학에서 기업 맞춤형 주문식교육으로 취업에 성공한 졸업자들.

특히 전자정보통신계열의 경우 8월 SK하이닉스반 졸업자들이 기탁한 1천500만원의 장학금을 포함, 지금까지 누계 후배사랑 장학금이 총 1억6천만 원에 달한다.

올해에만 이 계열에는 삼성디스플레이협약반 졸업 선배들이 850만 원을 쾌척했고, 삼성SDI협약반 졸업생들도 420만 원을 선뜻 내놓았다.

이로써 올해에만 현재까지 2천770만 원의 장학금이 조성됐다.

선배가 후배에게 전하는 장학금은 매년 릴레이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의 밑바탕에는 주문식교육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기



8일 대학 교수회관에서 가진 SK하이닉스반 후배사랑 장학금 전달식에서 선배인 장기영(앞줄 왼쪽서 세 번째) 씨와 SK하이닉스반 재학생과 교수진이 기념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고품격의 인재를 자연스럽게 기업에 입도선매되는 분위기. 실제 이 계열 기업협약반에서 수학하고 삼성, LG, 포스코 등 대기업에 진출한 졸업생은 모두 1천130여 명에 달한다.

SK하이닉스 입사동기들을 대표해 8일 대구를 방문, 장학금을 모교에 전한 장기영(23)씨는 “남들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동분서주할 때, 저는 기업협약반을 믿고 학업에만 열중했고, 지금 SK하이닉스 배지를 달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며 “영진전문

대학이 저에게 취업이라는 선물을 주었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마련했다”고 했다.

장성석 부장(전자정보통신계열 교수)은 “기업협약반 운영으로 재학생들은 취업 걱정 없이 전공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데다 선배들의 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까지 덜어주니, 주문식 교육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며 “회사의 눈높이 이상의 인재를 잘 키워 장학금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2015년 09월 09일 경북신문 16면



영진전문대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기탁하는 것이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다. 8일 이 대학 교수회관에서 가진 SK하이닉스반 후배사랑 장학금 전달식에서 선배인 장기영(앞줄 왼쪽서 세 번째)씨와 SK하이닉스반 재학생, 대학 교수진이 자리를 함께 했다. 사진제공-영진전문대

영진전문대 졸업생들, 뜨거운 후배 사랑 ‘화제’

**취업 선배들, 장학금 기부
올해에만 2천770만원 조성**

기업체 입사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장학금으로 베풀어 화제다. 주인공은 영진전문대에서 주문식교육으로 취업에 성공한 졸업자들. 이 가운데 전자정보통신계열의 경우 8일 SK하이닉스반의 올해 졸업자들이 기탁한 1천500만원의 장학금을 포함, 지금까지 누계 후배사랑 장학금이 총 1억6천만 원에 달한다.

올해에만 이 계열에서 삼성디스플레이 협약반 졸업 선배들이 850만원, 삼성SDI협약반 졸업생들이 420만원을 내놓았다. 이로써 올해에만 현재까지 2천770만원의 장학금이 조성됐다. 선배가 후배에게 전하는 장학금은 매년 릴레이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의 밑바탕에는 주문식교육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들 기입 현장에서 요구하는 고품격의 인제는 자연스럽게 기업에 입도선배되는 분위기. 실제 이 계열 기업협약반에서 수학과 삼성, LG, 포스코 등 대기업에 진

출한 졸업생은 모두 1천130여명에 달한다. SK하이닉스 입사동기들을 대표해 8일 대구를 방문, 장학금을 모교에 전한 장기영(23) 씨는 “남들은 취업문을 풀기 위해 등분서주할 때, 나는 기업협약반을 믿고 학업에만 열중했고, 지금 SK하이닉스 배지를 달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며 “영진전문대가 취업이라는 선물을 주었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학금을 받는 전재형(24, 전자정보통신계열 2년) 씨는 “산업현장에서 따

흐리면서 모은 선배들의 소중한 뜻을 가슴 깊이 새겨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석 부장(전자정보통신계열 교수)은 “기업협약반 운영으로 재학생들은 취업 걱정 없이 전공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데다 선배들의 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까지 덜어주니, 주문식 교육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며 “회사의 눈높이 이상의 인재를 잘 키워 장학금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상현 기자

2015년 09월 08일 경향신문 인터넷판

영진전문대 졸업생, 후배사랑 '릴레이 장학금'



주문식 교육으로 취업에 성공한 영진전문대학 졸업생들이 8일 대학 교수회관에서 후배들에게 릴레이 장학금을 전하고 있다. 영진전문대 제공

대구 영진전문대학 졸업생들이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는 전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

영진전문대는 이 대학 전자정보통신계열 기업협약반인 SK하이닉스반을 졸업하고 올해 SK하이닉스에 취업한 장기영씨(23) 등 42명이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 1500만 원을 내놓았다고 8일 밝혔다.

장씨는 “학교에서 제게 취업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준 만큼 취업한 동료들과 뜻을 모았다”면서 “후배들이 힘과 용기를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학 전자정보통신계열의 후배사랑 장학금은 2011년부터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올해 이 계열 삼성디스플레이협약반 졸업생들도 850만 원을 쾌척했고, 삼성SDI협약반 졸업생 역시 420만원을 선뜻 내놓았다. 이로써 올해 졸업한 취업생이 현재까지 기탁한 장학금은 2770만 원이다. 지난 5년간 누계액은 1억6000만원에 이른다.

영진전문대 전자정보통신계열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LG디스플레이, LIG넥스원 등의 기업과 다양한 협약반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이들 협약반과 관련된 기업을 포함해 삼성, LG, 포스코 등 대기업에 1130여 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후배들을 대표해 장학금을 받은 전재형씨(24·전자정보통신계열)는 “선배들이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며 모은 돈을 기꺼이 제공해주 정말로 고맙다”면서 “선배들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겠다”고 말했다.

2015년 09월 08일 문화일보 인터넷판

대구 영진전문대 취업졸업생, 후배위해 릴레이 장학금 기탁

대구의 한 전문대학에서 취업한 졸업생들이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내놓는 전통을 잇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대구 영진전문대에 따르면 이 대학 전자정보통신계열 기업협약반인 SK하이닉스반을 졸업하고 올해 SK하이닉스에 취업한 장기영(23) 씨 등 42명이 이날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 1500만 원을 내놓았다. 이 대학 전자정보통신계열의 후배사랑장학금은 2011년 시작됐다.

또 올해 이 계열 삼성디스플레이협약반 졸업생들도 850만 원을 쾌척했고, 삼성SDI협약반 졸업생 역시 420만 원을 선뜻 내놓았다. 이로써 올해 졸업한 취업생이 현재까지 기탁한 장학금은 2770만 원이며 5년간 누계액은 1억6000만 원에 이른다고 대학 측은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받고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후배들을 위해 릴레이로 장학금을 쾌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학에 따르면 전자정보통신계열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LG디스플레이, LIG넥스원 등의 기업과 다양한 협약반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이들 협약반과 관련된 기업을 포함해 삼성, LG, 포스코 등 대기업에 1130여 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

2015년 09월 08일 연합뉴스

'영진전문대의 힘'...취업 졸업생들이 매년 장학금 지원

올해만 2천770만원...2011년부터 릴레이식 1억6천만원 기탁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취업에 성공한 전문대 졸업생들이 해마다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내놓는 전통을 잇고 있다.

영진전문대는 전자정보통신계열 기업협약반인 SK하이닉스반 올해 졸업생 42명이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 1천500만원을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협약반 졸업생이 850만원, 삼성SDI협약반 졸업생이 420만원을 장학금으로 내놨을 해만 2천770만원이 모였다.

영진전문대에서는 기업 맞춤형 주문식 교육으로 취업한 선배들이 해마다 릴레이 하듯 장학금을 쾌척하고 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졸업생들이 후배들을 위해 내놓은 장학금은 모두 1억6천만원에 이른다고 대학 측은 밝혔다.

장성석 영진전문대 전자정보통신계열 교수는 "기업협약반 재학생들은 취업 걱정 없이 전공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데다 선배들의 도움으로 등록금 부담까지 덜어 주문식 교육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2015년 09월 08일 뉴시스

"취업에 감사한 마음. 후배들에게 베풁니다"



[대구=뉴시스 최창현 기자]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모교 후배들에게 장학금으로 베풁고 있어 대학가에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영진전문대학에서 기업맞춤형 주문식교육으로 취업에 성공한 졸업자들이다.

8일 대학에 따르면 이날 전자정보통신계열 SK하이닉스반 올 졸업자들이 1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들이 내놓은 후배사랑 장학금은 1500만원 포함, 지금까지 누계 총 1억6000만원에 달한다.

올해에만 이 계열에는 삼성디스플레이협약반 졸업 선배들이 850만 원을 쾌척했고, 삼성SDI협약반 졸업생들도 420만 원을 선뜻 내놓았다. 이로써 올해에만 현재까지 2770만원의 장학금이 조성됐다.

이 대학의 선배가 후배에게 전하는 장학금은 매년 릴레이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의 밑바탕에는 주문식교육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고품격의 인재를 자연스럽게 기업에 입도선매되는 분위기인 것. 실제 이 계열 기업협약반에서 수학하고 삼성, LG, 포스코 등 대기업에 진출한 졸업생은 모두 1130여 명에 달한다.

SK하이닉스 입사동기들을 대표해 이날 대학을 방문, 장학금을 모교에 전한 장기영(23)씨는 "남들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동분서주할 때, 저는 기업협약반을 믿고 학업에만 열중했고, 지금 SK하이닉스 배지를 달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라며, "영진전문대학이 저에게 취업이라는 선물을 주었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마련했다. 후배여러분 용기와 힘을 내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장학금을 받는 전재형(24, 전자정보통신계열 2년)씨는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모은 선배들의 소중한 뜻을 가슴 깊이 새겨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승혜(20, 전자정보통신계열 2년)씨는 "바쁜 회사생활 중에 짬을 내 후배들에게 취업과 회사에 대한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는 모습이 존경스럽고 감사할 따름이다. 나도 선배들처럼 후배들에게 배려할 수 있도록 학업에 더욱 열중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학 장성석 부장(전자정보통신계열 교수)은 "기업협약반 운영으로 재학생들은 취업 걱정 없이 전공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데다 선배들의 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까지 덜어주니, 주문식 교육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라며, "회사의 눈높이 이상의 인재를 잘 키워 장학금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09월 08일 뉴스1

영진전문대 졸업생들, 후배에 릴레이 장학금 기부

주문식 교육으로 '취업률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는 대구 영진전문대학 졸업생들이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8일 영진전문대에 따르면 올해 전자정보통신계열 SK하이닉스반을 졸업하고 SK하이닉스에 입사한 장기영(23)씨 등 42명이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 1500만원을 내놨다.

장학금을 기탁한 졸업생들은 같은 회사에 입사한 선배들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이를 릴레이식으로 후배들에게 되돌려 주려는 것이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협약반 졸업생들이 850만원, 삼성SDI협약반 졸업생들이 42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졸업생들이 올해 기탁한 장학금만 2770만원, 5년 간 누적액은 1억6000만원에 이른다.

영진전문대 관계자는 "전자정보통신계열 졸업생들의 후배사랑장학금은 2011년 시작돼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이 후배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이 주문식 교육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pen2408@]

2015년 09월 08일 아시아뉴스통신

"취업에 감사한 마음 후배들에게 베풁니다!" 영진전문대학 전자정보통신계열 선배들, 후배들 위해 1억6000여만원 쾌척



8일 영진전문대학 교수회관에서 열린 SK하이닉스반 후배사랑 장학금 전달식에서 선배인 장기영씨(앞줄 왼쪽서 세번째)와 SK하이닉스반 재학생, 대학 교수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영진전문대학)

높은 취업장벽을 뚫고 기업체에 입사한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모교로부터 받은 교육에 감사하는 마음을 후배들에게 장학금으로 베풁고 있어 대학가에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영진전문대학에서 기업맞춤형 주문식교육으로 취업에 성공한 졸업자들.

특히 전자정보통신계열의 경우 8일 SK하이닉스반 올해 졸업자들이 기탁한 1500만원의 장학금을 포함, 지금까지 누계 후배사랑 장학금이 총 1억6000만원에 달한다.

올해에만 이 계열에는 삼성디스플레이협약반 졸업 선배들이 850만원을 쾌척했고, 삼성SDI협약반 졸업생들도 420만원을 선뜻 내놓았다.

이로써 올해에만 현재까지 2770만원의 장학금이 조성됐다.

선배가 후배에게 전하는 장학금은 매년 릴레이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의 밑바탕에는 주문식교육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고품격의 인재를 자연스럽게 기업에 입도선매되는 분위기.

실제 이 계열 기업협약반에서 수학하고 삼성, LG, 포스코 등 대기업에 진출한 졸업생은 모두 1130여 명에 달한다.

SK하이닉스 입사동기들을 대표해 8일 대구를 방문, 장학금을 모교에 전한 장기영씨(23)는 "남들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동분서주할 때, 저는 기업협약반을 믿고 학업에만 열중했고, 지금 SK하이닉스 배지를 달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영진전문대학이 저에게 취업이라는 선물을 주었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마련했다. 후배 여러분도 용기와 힘을 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장학금을 받는 전재형씨(전자정보통신계열 2년.24)는 "산업현장에서 맘 흘리면서 모은 선배들의 소중한 뜻을 가슴 깊이 새겨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최승혜씨(전자정보통신계열 2년.20)는 "바쁜 회사생활 중에 짬을 내 우리 후배들에게 취업과 회사에 대한 좋은 정보를 알려주시고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시는 모습이 존경스럽고 감사할 따름이다. 나도 선배들처럼 후배들에게 배려할 수 있도록 학업에 더욱 열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석 부장(전자정보통신계열 교수)은 "기업협약반 운영으로 재학생들은 취업 걱정 없이 전공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데다 선배들의 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까지 덜어주니, 주문식 교육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며 "회사의 눈높이 이상의 인재를 잘 키워 장학금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시아뉴스통신=박종률기자]

2015년 09월 09일 세계일보 인터넷판

영진전문대 취업 졸업생들이 매년 장학금 지원

취업에 성공한 전문대 졸업생들이 해마다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내놓는 전통을 잇고 있다.

영진전문대는 전자정보통신계열 기업협약반인 SK하이닉스반 올해 졸업생 42명이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 1500만원을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협약반 졸업생이 850만원, 삼성SDI협약반 졸업생이 420만원을 장학금으로 내놨다. 올해만 2770만원이 모였다.

영진전문대에서는 기업 맞춤형 주문식 교육으로 취업한 선배들이 해마다 릴레이하듯 장학금을 쾌척하고 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졸업생들이 후배들을 위해 내놓은 장학금은 모두 1억6000만원에 이른다고 대학 측은 밝혔다.

장성석 영진전문대 전자정보통신계열 교수는 “기업협약반 재학생들은 취업 걱정없이 전공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데다 선배들의 도움으로 등록금 부담까지 덜어 주문식 교육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문종규기자 mj206@segye.com

2015년 09월 08일 브릿지경제 인터넷판

대학 선후배 '情'...영진전문대 대학가 큰 감동



주문식교육으로 취업에 성공한 영진전문대학 졸업생들이 후배들에게 릴레이식 장학금을 전하고 있다. 8일 대학 교수회관에서 열린 SK하이닉스반 후배사랑 장학금 전달식에서 선배인 장기영(앞줄 왼쪽서 세 번째)씨와 SK하이닉스반 재학생, 대학 교수진이 기념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영진전문대학)

올해 들어 이 계열에서만 삼성디스플레이협약반 졸업 선배들이 850만원을, 삼성SDI협약반 졸업생들도 420만원의 '情'을 내놨다.

올해에만 현재까지 2770만원 장학금이 조성됐다.

8일 영진전문대학에 따르면 선배가 후배에게 전하는 장학금은 매년 릴레이식으로 이어져 학교가 자랑하는 주문식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 원하는 고품격의 인재를 양성해 이 계열 기업협약반에서 수학하고 삼성과 LG, 포스코 등 대기업에 진출한 졸업생이 1130여명 정도다.

이날 SK하이닉스 입사동기를 대표해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한 장기영(23)씨는 “남들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동분서주할 때, 저는 기업협약반을 믿고 학업에만 열중했고 지금은 SK하이닉스 배지를 달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면서 “영진전문대학이 저에게 취업이라는 선물을 주었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마련해 후배 여러분! 용기와 힘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배로부터 장학금을 전달받은 전재형(24, 전자정보통신계열 2년)씨는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모은 선배들의 소중한 뜻을 가슴 깊이 새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영진대학 최승혜(20, 전자정보통신계열 2년)씨는 “바쁜 회사생활 중에 짊어 내 우리 후배들에게 취업과 회사에 대한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는 모습이 존경스럽고 감사할 따름이다. 나도 선배들처럼 후배들에게 배려할 수 있도록 학업에 더욱 열중하겠다”고 밝혔다.

영진전문대학 장성석 부장(전자정보통신계열 교수)은 “기업협약반 운영으로 재학생들은 취업 걱정 없이 전공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데다 선배들의 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까지 덜어주니, 주문식 교육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회사의 눈높이 이상의 인재를 잘 키워 장학금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

2015년 09월 09일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영진전문대 졸업생들, 후배위해 매년 장학금 기탁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취업에 성공한 영진전문대 졸업생들이 매년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내놓는 전통을 잇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영진전문대는 전자정보통신계열 기업협약반인 SK하이닉스반 올해 졸업생들이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 1천500만원을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협약반 졸업생이 850만원, 삼성SDI협약반 졸업생이 420만원을 장학금으로 내놨다.



취업에 성공한 영진전문대 졸업생들이 8일 후배들에게 릴레이 장학금을 전하고 있다.[사진제공=영진전문대]

대학 측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졸업생들이 후배들을 위해 내놓은 장학금은 모두 1억6천만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장성석 전자정보통신계열 교수는 “기업협약반 재학생들은 취업 걱정 없이 전공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데다 선배들의 도움으로 등록금 부담까지 덜어 주문식 교육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09월 08일 뉴스웨이

영진전문대, 취업선배들의 후배 사랑 전자정보통신계열 취업자들 1억6000천여만 원 쾌척



높은 취업장벽을 뚫고 기업체에 입사한 졸업자들이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영진전문대학에서 기업맞춤형 주문식 교육으로 취업에 성공한 졸업자들.

특히 전자정보통신계열의 경우 8일 SK하이닉스반을 졸업자들이 기탁한 1천500만원의 장학금을 포함, 지금까지 누계 후배사랑 장학금이 총 1억6천만원에 달한다.

▲ 주문식교육으로 취업에 성공한 영진전문대학 졸업생들이 후배들에게 릴레이식 장학금을 전하고 있다. 사진은 8일 대학 교수회관에서 가진 SK하이닉스반 후배사랑 장학금 전달식에서 선배인 장기영(앞줄 왼쪽서 세 번째)씨와 SK하이닉스반 재학생, 대학 교수진이 기념 사진촬영에 나선 모습.

올해에만 이 계열에는 삼성디스플레이협약반 졸업선배들이 850만 원을 쾌척했고, 삼성SDI협약반 졸업생들도 420만 원을 선뜻 내놓았다.

이로써 올해에만 현재까지 2770만 원의 장학금이 조성됐다.

선배가 후배에게 전하는 장학금은 매년 릴레이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의 밑바탕에는 주문식교육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고품격의 인재를 자연스럽게 기업에 입도선매되는 분위기.

실제 이 계열 기업협약반에서 수학하고 삼성, LG, 포스코 등 대기업에 진출한 졸업생은 모두 1천130여 명에 달한다.

SK하이닉스 입사동기들을 대표해 8일 대구를 방문, 장학금을 모교에 전한 장기영씨(23)는 "남들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동분서주할 때, 저는 기업협약반을 믿고 학업에만 열중했고, 지금 SK하이닉스 배지를 달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영진전문대학이 저에게 취업이라는 선물을 주었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마련했으니 용기와 힘을 내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장학금을 받는 전재형(24, 전자정보통신계열 2년)씨는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모은 선배들의 소중한 뜻을 가슴 깊이 새겨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최승혜(20, 전자정보통신계열 2년)씨는 "바쁜 회사생활 중에 짊어 내 우리 후배들에게 취업과 회사에 대한 좋은 정보를 알려주시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모습이 존경스럽고 감사할 따름이다. 나도 선배들처럼 후배들에게 배려할 수 있도록 학업에 열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석 부장(전자정보통신계열 교수)은 "기업협약반 운영으로 재학생들은 취업 걱정 없이 전공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데다 선배들의 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까지 덜어주니, 주문식 교육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며 "회사의 눈높이 이상의 인재를 잘 키워 장학금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대구 홍석천 기자 newsroad]